

유료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의 이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 승 의**

I. 서 론

우리 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령 인구의 증가율은 2023 년경에는 고령사회에 이를 것이고, 노령화지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여 70%를 상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9).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의 노인 인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어 노인들을 돌보아야 할 가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주의 가치관이 새로운 변화를 겪으면서 노인부양의식이 점차로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가족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파급되었다.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인과 그들 가족의 질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호산업이 발달하여, 가족들에게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는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이를 이용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설이 너싱홈(Nursing Home)이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호사업의 일환인 시설 보호가 돌보아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국한되어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시설이나 인력,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미흡하여 이러한 시설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Moon, 1996).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으로 병후 회복기에 있는 노인과 중풍, 치매 등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계층의 노인들이 보호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의료 기능이 보다 강화된 시설 설립이 강조되어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alfare, 1998).

이러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 자신보다는 가족 보호자들의 선택이 더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설 이용을 결정하기까지의 노인들의 상태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며, 이용자들이 비용전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므로 대부분 가족 보호자들이 시설 이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Collins, King, Given과 Given, 1994 ; Kim,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요약임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2000).

이에 본 연구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 환자와 가족 보호자의 특성을 밝혀내고, 유료노인요양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보호자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여 앞으로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수요와 운영 및 노인 보건복지 정책 형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 환자의 특성 및 가족보호자의 욕구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가족 보호자의 결정요인을 확인한다.
- 3) 유료노인요양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보호자의 결정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입원한 60세 이상 노인 환자의 가족 보호자 479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3. 연구도구

1) 노인 환자의 특성

(1)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McAfee(1998)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총 5문항, 식사, 옷 입기, 목욕, 화장실 이용, 이동 및 보행으로 구성하였다. McAfee (1998)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725였다.

(2)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Kwon(1994)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총 6문항, 식사준비, 시장보기, 돈 관리, 전화사용, 세탁, 교통수단이용으로 구성하였다. Kwon(1994)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05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704였다.

(3) 인지장애

인지장애 항목은 McAfee(1998)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McAfee(1998)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478이었다.

(4) 문제행동

문제행동 항목은 McAfee(1998)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McAfee(1998)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566이었다.

2) 가족 보호자의 결정 요인

(1) 욕구요인

부담감은 Kwon(1994)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항목들을 요인 분석하여 시간적 부담감, 환자간호 부담감, 가족관계 부담감, 정신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 신체적 부담감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Kwon(1994)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0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463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4주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노인 환자의 가족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최종분석대상 설문지의 전체 표집수는 479부이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9.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항목은 기초 분석으로 빈도분석과 평균값 비교 등의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연구가설들에 적합하도록 카이제곱검정(χ^2 -test), t-검정(t-test), 변량분석(ANOVA),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coefficients analysis),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노인 환자의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219명(45.7%), 여성이 260명(54.3%)이었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255명(54%)으로 가장 많았으며, 70~79세가 171명(36.2%)순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66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 97명(20.5%), 고등학교 졸업 73명(15.4%), 무학 69명(14.6%)이었다. 종교는 불교 151명(31.7%), 무교 133명(27.9%), 기독교 117명(24.5%), 천주교 66명(13.8%)이었다. 결혼상태로는 기혼이 322명(67.4%), 사별이 132명(27.6%), 재혼이 13명(2.7%), 별거 4명(0.8%)이었다.

주택 소유 현황으로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가 395명(83.3%)이었다. 재산은 5천만원 이하 113명(27.8%), 5천만~1억 미만이 101명(24.9%), 1억~2억 미만이 89명(21.9%)순이었다. 노인 환자의 자녀 중 아들은 평균 2명, 딸도 평균 2명이었다.

최근 3년간 입원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가 221명(46.9%), 3개월 미만이 172명(36.5%), 3~6개월 미만이 36명(7.6%), 1년 이상이 28명(5.9%)이었다.

노인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 보호자의 욕구요인인 부담감 정도의 차이에서 주택소유 현황($F=3.647$, $p=.006$), 재산($F=3.548$, $p=.002$), 최근 3년간 입원기간($F=5.761$, $p=.000$), 현재 입원기간($F=5.523$, $p=.001$), 일상생활수행능력($F=4.836$, $p=.008$),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F=5.414$, $p=.005$), 인지장애($F=9.158$, $p=.000$), 문제행동($F=15.626$,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의 특성 중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F=87.181$, $p<.001$)과 입원기간($F=67.203$, $p<.001$), 성별($F=52.139$, $p<.001$), 결혼상태($F=43.715$, $p<.001$), 문제행동($F=38.926$, $p<.001$), 주택소유현황($F=35.185$, $p<.001$) 그리고 인지장애($F=30.978$, $p<.001$)가 가족 보호자의 욕구요인인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 가족보호자의 결정요인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보호자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Andersen과 Newman(1973)의 행위모형을 바탕으로 하였다. 가족 보호자를 중심으로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그리고 욕구요인으로 나누었다. 이는 각각 성별·연령·학력·종교·직업·결혼상태·건강상태, 재산·경제적 상태·주택소유현황·부양형태, 그리고 부담감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 보호자의 선행요인 중 결혼상태($F=29.770$, $p<.001$), 종교($F=27.729$, $p<.001$), 건강상태($F=27.595$, $p<.001$), 성별($F=24.872$, $p<.001$), 학력($F=21.029$, $p<.001$), 그리고 연령($F=18.251$, $p<.001$) 등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성별상 여자가, 학력은 대학교 이상일 때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료노인요양시설 이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 Predisposing Factor Affecting Determination of Utilizing The Nursing Home

Variable	R of Square	Adjusted R Square	Beta	F	P
marital status	.022	.021	-.333	29.770	.000
religion	.040	.038	-.231	27.729	.000
health status	.058	.056	.206	27.595	.000
sex	.069	.066	.282	24.872	.000
education	.073	.069	.153	21.029	.000
age	.075	.071	.005	18.251	.000

$\alpha < 0.05$, $p < 0.05$

다(Table 1).

가족보호자의 가능성요인에 관한 가설은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능성요인은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보호자의 욕구요인인 부담감 중에서 경제적 부담감을 제외한 환자간호 부담감(F=26.955, p<.001), 시간적 부담감(F=25.106, p<.001), 가족관계 부담감(F=19.366, p<.001), 신체적 부담감(F=15.843, p<.001), 정신적 부담감(F=13.657, p<.001)이 유의하였는데, 환자간호 부담감이 높을수록 유료노인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적 부담감, 가족관계 부담감,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도 높을수록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 결정요인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영향력을 가진 결정요인들만을 취합해 예측모형을 만들어 보았는데 11개의 요인들 가운데, 6개의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간호 부담감(F=48.123, p<.001)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종교(F=41.897, p<.001), 시간적 부담감(F=37.184, p<.001), 건강상태(F=35.328, p<.001), 결혼상태(F=32.451, p<.001), 그리고 학력(F=25.252, p<.001)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간호 부담감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 때, 시간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배우자가 없을 때,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즉 대학교 이상일 때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IV. 논 의

노인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가족 보호자의 돌봄의 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파급되었고, 노인 환자와 가족 보호자의 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재방안의 일환으로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노인 환자와 가족 보호자의 특성을 밝혀내고, 유료노인요양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보호자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앞으로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수요와 운영 및 노인보전복지 정책 형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노인 환자의 특성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장애, 문제행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인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 보호자의 욕구요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 환자의 주택소유현황, 재산, 최근 3년간 입원기간, 현재 입원기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장애, 문제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1993)의 노인 환자의 입원기간이 가족 보호자의 부담감 정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환자의 특성이 가족 보호자의 욕구요인인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Table 2> Need Factor Affecting Determination of Utilizing The Nursing Home

Variable	R of Square	Adjusted R Square	Beta	F	P
care burden	.016	.015	.142	26.955	.000
time burden	.030	.028	.131	25.106	.000
family relation burden	.034	.032	7.974E-02	19.366	.000
physical burden	.037	.035	5.14E-02	15.843	.000
mental burden	.040	.037	7.379E-02	13.657	.000

$\alpha < 0.05$, $p < 0.05$

<Table 3> Determining Factors of Utilizing The Nursing Home

Variable	R of Square	Adjusted R Square	Beta	F	P
care burden	.043	.042	.205	48.123	.000
religion	.073	.071	-.378	41.897	.000
time burden	.095	.092	.184	37.184	.000
health status	.117	.114	.233	35.328	.000
marital status	.133	.128	-.357	32.451	.000
education	.143	.137	.174	25.252	.000

$\alpha < 0.05$, $p < 0.05$

입원일수, 성별, 결혼상태, 문제행동, 주택소유여부 그리고 인지장애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환자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좋지 않을수록 가족 보호자의 욕구요인인 부담감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입원기간이 길수록, 남자일수록, 배우자가 없을 때,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할수록, 주택을 소유할수록, 인지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가족 보호자의 부담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보호자가 인지하는 부담감이 노인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No, 1997; Shin, 1994), 노인 환자 간호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같은 특성이 가족 보호자가 노인 환자를 시설에 맡기게 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Chenier, 1997; Kao, 1999).

부담감의 각 영역별로 평균값 조사를 한 결과 최저 2.14점에서 최고 3.23점의 분포를 보였다. 가장 높은 점수는 신체적 부담감이 3.2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부담감이 2.89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체적 부담감이 다른 부담감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이라는 환경에 입원한 노인 환자를 간호하는데 대한 피로감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감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본다.

가족 보호자의 결정요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가족 보호자의 선행요인에서는, 가족 보호자의 결혼상태, 종교, 건강상태, 성별, 학력, 그리고 연령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성별상 여자가, 학력이 대학교 이상일 때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 보호자의 건강상태가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온 Deimling과 Poulshock(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가족 보호자의 가능성요인에 관한 가설은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전혀 없으며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국민들 특성상 재산이나 수입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기 꺼려하여 솔직한 응답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가족 보호자의 욕구요인인 경우 환자간호 부담감, 시간적 부담감, 가족관계 부담감, 신체적 부담감, 정신적

부담감이 유의하게 나왔다. 6개의 부담감 요인 중 5개 요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담감 중에서 환자간호 부담감이 높을수록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적 부담감이나 가족관계 부담감,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이용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Zarit, Reeve와 Bach-Peterson(1980)이 가족 보호자의 부담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담면접 척도를 개발시킨 이래로, 여러 연구들이 이 척도를 발전시켜 가족 보호자의 부담감이 노인의 유료노인요양시설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Deimling과 Poulshock, 1985; Kao, 1999; McAfee, 1998; Kwon, 1994; Cha, 1998).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에 영향력을 가진 결정요인들만을 갖고 스텝와이즈 방식의 투입법을 이용하여 살펴본 있는데, 총 11개의 요인들 가운데 6개 요인이 유의한 값을 가졌다. 특히 환자간호 부담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종교, 시간적 부담감, 건강상태, 결혼상태, 그리고 학력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간호의 부담감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 때, 시간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배우자가 없을 때,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즉 대학교 이상일 때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보호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해지면서 노인 환자와 가족 보호자 모두의 질적인 삶을 위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민영화 확대되고,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수준과 이용자의 만족도에 따라서 민영화의 장점이 부각되면 이는 정부의 과중한 사회보장복지 예산을 축소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득의 향상과 질 높은 노후생활 요구로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민영화된 보건복지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건전한 유료노인요양시설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조건,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 및 노인보호 등에 대하여 적절한 사업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체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족상담이나 모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가족, 가까운 친구나 친척 등의 인적자원을 대체하는 방법들과 또한 서로 입장이 비슷한 보호자들이 모여서 정신적 상처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서적 지원체제를 구축할 중재방안이 간호학 영역에서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가족이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 보호자의 환자보호능력이 점차 약해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또는 퇴원이후에 재가 노인을 전적으로 간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노인들의 수명 연장은 부양하는 가족 보호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져다준다. 이에 따라 노인과 가족 보호자 모두의 질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가족들에게는 생활의 재충전을, 노인들에게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Andersen과 Newman 모형에서 개인적 결정요인만을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 결정요인으로 한정하였는데, 사회 환경적 결정요인과 의료서비스 체계 등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가족 보호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외 지역 사회내에 거주하는 만성질환 노인 가족 보호자와의 유료노인요양시설 이용 결정 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 Andersen, R., & Newman, S. J. (1973).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Milbank Mem Fund Quarterly*, 51, 95-124.
- Cha, H. B. (1998). *A study of family caregiver's preference and its determinants for the long-term care service use for the impaired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Chenier, M. C. (1997). Review and analysis of caregiver burden and nursing home placement. *Geriatr Nurs*, 18(3), 121-126.
- Collins, C., King, S., Given, C. W., & Given. B. (1994). *Understanding Community Service Use among Family Caregivers of Alzheimer's Patients. Stress Effects on Family Caregivers of Alzheimer's Patients*. Springer Pub. Co.
- Deimling, G. T., & Poulshock, S. W. (1985). The transition from family in-home care to institutional care. *Research on Aging*, 7, 563-577.
- Kao, Hsueh-Fen. (1999). *Caregiver burde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lderly in Taiwanese families*. PH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Kim, W. H. (2000).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Utilizing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 Kwon, C. D. (1994).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caregiver burden in caring for the demented elderly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Lee, Y. S. (1993). *A Study on The Family Burden of Chronically Ill Patient at hospital*.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McAfee, D. F. (1998). *Predictors of Perceived Emotional Distress : Objective, Subjective, and Demand Burden : and Health Status of Informal Nursing Home Caregivers (Family)*. PHD. University of Kansa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8).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 Moon, H. S. (1996).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Silver Industry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9). *Report on the social statistics survey*.

No, Y. S. (1997). *Burden and Social support in family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hin, H. K. (1994). *Burden and Health Status in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iseas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6), 649-655.

- Abstract -

A Study on the Determining Factors of Utilizing the Nursing Home*

Han, Seung Eui**

Purpose :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caregivers, to study the main factors affecting Nursing Home utilization, and to help frame a policy about Nursing Home's demand, management and welfare facilities.

Method : Data for this present study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randomly distributed to family caregivers of the over 60-year-old patients at general hospital and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yung-Ki Do and In-Chon from 26 June to 20 July, 2000. Questionnaires were issued to 512 people and 479 were returned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χ^2 -test, t-test, ANOVA, factor analysis, correlation coefficients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9.0.

Result : First,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duration of hospitalization, sex, marital status, behavior problems, home ownership, and cognitive disorder about elderly patients affect family caregivers burden, one of need factors.

Secondly, marital status, religion, health status, sex, education and age in the family caregiver predisposing factors are main factors on Nursing Home utilization.

Third, in need factors, care burden, time burden, family relation burden, physical burden and mental burden have an effect on Nursing Home utilization.

Finally, the model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Nursing Home utilization is composed of six of eleven totally, care burden, religion, time burden, health status,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When the family caregivers get care burden and time burden, are highly educated, have no religion, have health problems, and have no spouse, it is possibility for them to utilize Nursing Homes.

Conclusion : The government should decrease a family caregivers burden and seek to find how to support Nursing Homes. Furthermore, Social support program for the family caregivers should be required. Thus, the family caregivers need consultation and need to meet to talk about their patients, how to care them, get information, which are the crucial field in advancing the research in nursing science.

Key words : Nursing home, Family caregivers, Determining factors

*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